

글로벌 UAM 기업과 동맹...‘1900조 시장’ 삼킨다

〈도심항공교통〉

2040년까지 1929조원 성장 전망
양사, 美 ‘오버에어’ 시리즈B 투자
佛 ‘사프란’과 전방위적 업무 협약
한화시스템은 美 ‘하니웰’과 MOU



한화시스템-오버에어 UAM 기체 버티플라이 이 미지.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메이저 회사들과 동맹을 맺고 UAM(도심항공 교통) 시장 선점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 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 5000억 달러(약 19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사는 6월 내년 3분기 UAM 무인 시 제기 비행을 목표로 미국의 UAM 기술 선 도기업 오버에어(Overair)가 진행한 1억 1500만 달러(약 1479억원) 규모의 시리즈 B(스타트업의 두 번째 단계 자금조달) 투 자에 참여한 데 이어, 각각 미국과 프랑스 의 메이저 방산·우주항공 기업과 동맹을 맺으며 사업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미국 의 방산·우주항공 기업 하니웰(Honey well)과 ‘미래형 항공기체(AAV) 체계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니웰은 2020년 미국 30개 대표기업 으로 구성된 다우존스스피우에 편입된 글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알렉상드르 지글러 사프란 그룹 수석 부사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화시스템

로벌 대표 밀리테크 기업이다.

한화시스템과 하니웰은 UAM 활용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1세대 기체 ‘전기 수 직 이착륙 항공기(eVTOL)’와 자율비행 및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2.3세대 미래 형 비행체(AAV)’ 개발을 위해 손을 잡는 다. 양사는 ▲2.3세대의 AAV 분야와 하 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관련 사업협 력 ▲국내외 시장 신규 서비스 발굴과 수 요 창출 등에서도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 이스와 함께 유럽의 우주항공 및 방산 기업인 프랑스 사프란(Safran) 그룹과 군·민수 분야부터 미래 우주·모빌리티 산업까지 ‘전방위적 사업협력 강화’를 위 한 다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사 프란은 ▲UAM 시장 확대에 필수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경제성·효율 성을 갖춘 추진 시스템 ▲위성발사 서비 스 분야 등에서 상호협력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3사는 공동 위경 그룹을 구성해 우주항공 산업 부문 협 력 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완 한화시스템 UAM 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이 글로벌 UAM 밸류체인 (가치사슬)에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 도록 기체개발·버티포트·교통관리 서 비스 개발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메이저 플레이어들과 함께 각사의 강점을 활용 해 UAM 시장에서 새로운 융합형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UAM 전문기 업인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공 동협력의항서를 체결하고, 전기수직이 착륙기용 전기식 작동기(EMA) 공동개 발에 나선다. 전기식 작동기는 전기에너 지를 이용한 모터의 회전 동력을 통해 U AM의 각종 기계 동작을 제어하는 구동 장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버티컬사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4인 승 에어택시 VX4에 적용될 전기식 작동 기 개발과 양산공급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UAM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 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왼쪽), 크리스토프 마케 베올리아 아시 아-태평양 총괄(화상), 베올리아 코리아 대표이사 에르베 프노가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SK지오센트릭

SK지오센트릭, 佛 환경기업 ‘베올리아’와 MOU 페플라스틱 재활용 중심 아시아 순환경제 구축

SK이노베이션 친환경 화학사업 자회사 SK지오센트 립이 프랑스 환경기업인 베올리아와 손잡고 아시아 시 장 공략을 목표로 페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경제 사업 구축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과 베올리아아시아는 22일 서울시 중 로구 SK그린캠퍼스(종로타워)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아시아 시장 내 순환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1853년 설립된 베올리아는 수처리부터 에너지 관리,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프 랑스의 대표적인 환경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만 약 285 억 유로(약 39조 원)에 이른다. 베올리아는 플라스틱 기 계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재활용 방법이 없 는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구현하는 분야를 위 해 SK지오센트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페트 (PET), 폴리프로필렌(PP), 열분해 원료로 쓰이는 페플 라스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플라스틱 열분해 는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또는 매립하 고 있는 페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 다. 또한 SK지오센트릭 울산 화학적 리사이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확대에도 적극 협력키 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전략적 협력을 디딤돌 삼아 플라 스틱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으로 친환경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전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맞춰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순환경제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롯데케미칼, 국제친환경인증 ‘ISCC PLUS’ 획득

롯데케미칼의 합성수지 7개 제품이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준으로, 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국제적 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롯데케미칼의 금번 인증 제품 은 석유화학 원료인 PE(Polyethylene), PP(Polypropy lene), PC(Polycarbonate), BD(Butadiene), PET(Pol yethylene terephthalate) 제품과 고기능성 합성수지 제품인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캄파 운드 PC 제품이다.

포스코케미칼, 배터리소재 투자 잦팍...역대 최대 매출

올 2분기 8032억, 전분기보다 21% ↑
영업이익은 552억...두배 이상 늘어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핵심 사업 투자를 통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032억 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2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2억 원으 로 양극재 사업 수익성 강화 전략이 주효 해 전 분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16.2%를 기록하며 8분기 연속 역대 최대 를 경신했다.

배터리소재사업에서는 글로벌 양극재 투자로 2021년 단행했던 중국법인 절강포 화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그룹과 연계해 전략적 조달 체계를 구축 중인 리튬·니켈 등의 원료가격 상승이 판매가에 반영되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24.5% 증가한 3951억 원을 기록했다.

양극재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전기차용 하이니켈 제품 비중이 91%에 달하고, 국내 외에 증설 중인 양산라인의 가동률과 수출

이 높아지며 고공 성장 중이다. 양극재 사업 매출은 포스코ESM을 합병해 사업에 진출 한 2019년 2분기 319억 원에서 올해 2분기 3486억원으로 상승해 3년간 1017% 증가했 다.

음극재 사업 매출은 465억 원으로, 전기 차용 반도체 공급부족 영향에도 불구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와 IT 배터리용 제품 비중이 늘어나며 지속 성장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하반기에도 글로 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거시경 제 불확실성과 원료 및 공급망 이슈가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수요 적기대응을 위한 양산능력 투 자, 고객과 시장 다변화에 맞춘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주 확 대, 원료 공급망 고도화 등을 통한 성장 가속 화와 수익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에도 집중한다. 양극재는 전기차 고성능화 에 대응해 니켈 비중 90% 이상의 양극재 양산을 준비하고, 하이니켈 NCA(니켈·코 발트·알루미늄)와 보급형 전기차를 위한 LFP(리튬인산철)·하이망간 제품 사업화 에 나설 계획이다. 음극재도 차세대 소재 인 SiOx(실리콘복합산화물) 및 Si-C(실리 콘카본) 제품 등의 양산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7일 (수) 음력: 6월 2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겹쳐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값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 없는 욕심을 버리면 안 되며,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오늘날을 내일로 미루어라.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오늘은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벼간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떠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변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대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대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계절적으로는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깨를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회기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전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몰락 직전의 찬란한 빛을 암시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함에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연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기다려라.		봉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움직이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서울	20/60	인천	10/20	춘천	20/20
	26 33		25 30		24 33
강릉	0/0	대전	20/10	전주	20/60
	23 29		24 33		24 32
광주	20/10	대구	20/20	부산	10/0
	23 32		23 32		23 30
창원	10/0	제주	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2 31		24 31	날씨	최저 최고기온°C